

학교복합시설 공모 추진

도교육청, 부안 변산초교 내에... 도내 최초

국공립어린이집 등 포함... 신청서 교육부 제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도내 최초로 변산초등학교 내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안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등이 포함된 전북형 학교복합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전북형 학교복합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등이 통합된 공간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교육과 문화환경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며, 작은 도서관은 학생들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교육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교육

부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협력을 강화해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부안 지역을 시작으로 도내 시·군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교육과 돌봄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이 25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현안 논의를 위한 교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에듀페이 사업 '주목' ... 지원 계획 설명회

도교육청, 도내 학교

교감·행정실장 대상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학생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전북에듀페이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5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전북에듀페이 지원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내 각급학교 교감 및 행정실장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와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전북에듀페이는 9월 1~7일에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집중신청 기간에 대상자가 모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올해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 1인당 30만원, 고등학교 2학년에게 학습지원비 1인당 20만원, 중·고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5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전북에듀페이 지원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3 학생에게 진로지원비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도내 주소지를 둔 고등학교 단계(16~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월 10만원(최대 40만원)의 학습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총 6만 600여 명에 188억3,000여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에듀페이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라며 "전북에듀페이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도내 아이들 모두가 배움의 권리를 누리면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지난 23~26일 제18회 한·중·일 CSE(Carbon Saves the Earth) 2023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탄소중립 달성 위한 탄소 소재

전주대, 한·중·일 CSE 2023 심포지엄

획기적 아이디어 발표·토론의 장 마련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단장 김상진)은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지난 23~26일 제18회 한·중·일 CSE(Carbon Saves the Earth) 2023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중국 칭화대학 교수, 일본 규슈대학 교수 등 총 120여 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이 행사를 공동 주관한 LINC 3.0 사업단은 CSE 심포지엄은 한·중·일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3년 단위로 각국 인사를 초청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주대학교 LINC 3.0 사

업단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탄소학회, 전주대학교 탄소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 소재라는 주제로 국경을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다양한 발표 및 토론의 장이 열렸다.

전주대학교 탄소연구소 김홍건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가 범국가적 다양한 탄소 관련 친환경에너지CC 기관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산학연 간 교류가 확대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소상공 디지털

특성화 대학 2학기 개강식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지난 23일 교내 체플린관 플립러닝강의실에서 2023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2학기 개강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1.5대 1 경영평을 통해 선정된 60명의 2기 교육생을 비롯해 전주기전대학 박광철 교수, 온라인 시장 마케팅에 특화된 김현민, 정은경 전문가, 전주기전대학 사회경제인력양성과 멘토링 관련 안상봉, 강기일 교수, SK플래닛 영규영 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유관기관인 전북중소기업유통센터와 전북지식재산센터에서 지역 소상공인 상생을 위하여 유관기관 지원사업, 상표권 출원, 리빙인양성교육 등 소개가 함께 이뤄졌다.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소상공인 디지털특성화대학에서는 2023년 2기 교육생들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장 진출 전략 관련 e-러닝 필수교육 등을 진행하며, 온라인 마케팅에 전문인 멘토링 교수들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1 집중형태의 심층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마케팅 전략, ChatGPT 마케팅활용, 스마트 스토어 개설 운영, 제품상세분석, 상세페이지 제작, 디지털 실습 e-커머스 사이트(스마트스토어, 쿠팡 등)를 활용한 제품판매 등 실습교육도 이뤄졌다.

이어 2부에는 '온라인 커머스 시장 이해와 상품 개발 판매 과정' 주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한 SK플래닛 영규영 부장의 특강이 펼쳐졌다.

한편 이번 행사는 교육생들의 참여도를 고취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및 향후 입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내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내달 8일까지 인터넷·방문 접수... 교육·학예분야 총 25억원 내외 지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년도 지방보조금(민간보조)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를 육성해 민간의 교육행정에 증대로 행복한 전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접수 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다.

공모분야는 독서·토론 교육활동 지원, 예술활동 지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과학교육 지원,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인성교육 지원, 환경교육 지원, 민주시민교육 지원 등 교

육·학예에 관한 분야이며, 총 지원예산은 25억원 내외다.

지원 대상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사무소가 전북에 소재하고, 사업범위가 전북 관내에 해당하는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비롯한 초·중등교육과 관련 사업인 단체 △공공일 현재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등이다.

공모를 희망하는 단체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여/제안-민간보조사업-공모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

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전심의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분기별로 집행내역이 공개된다. 또한 보조금사업의 적정행 집행을 위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을 실시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사후성과평가를 실시해 다음해 보조금사업 심사에 반영한다. /정은성 기자

첨단기술 융합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전북대 푸드테크학과 내달 1일 개강

식품클러스터진흥원 등서 강의·실습

전북대학교 총장 양오봉)가 첨단기술이 융합된 식품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본격화했다.

지난 25일 전북대에 따르면 푸드테크학과를 개설, 최근 식품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사과정생을 모집해 9월 1일 개강을 앞두고 있다.

'푸드테크'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정보기술(IT)·생명공학(BT)·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한다.

20명의 석사과정생으로 출발하는 전북대 푸드테크학과는 전북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서 강의와 실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학교 HACCP 교육원,

그리고 산업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해 푸드테크 신산업 분야를 이끌 인재를 배출한다.

이 학과의 총괄 책임을 맡은 김광표 교수(전북대 식품공학과)는 "푸드테크 학과 운영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지역 식품기업 재직자 전문성 강화,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상생 발전 등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며 "대학과 지역을 일리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오봉 총장은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 사업 선정으로 신설된 학과인 만큼 푸드테크학과를 통해 우수인력을 지역에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대의 우수한 교육과 연구 역량을 발휘해 푸드테크 신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육문화회관 IB 교육 주체 행사 다채

전주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한달 간 미래교육의 발자국, IB 교육'을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북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따라 국제 인증 교육인 IB교육의 6개 과목(언어, 문학, 예술, 과학, 사회, 수학)을 준비한 것이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전주교육문화회관 누리집(<https://lib.jbc.go.kr/j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관장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전북교육 정책과 IB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교직원 퇴직예정자 교육 내달 13일부터 총 9회 걸쳐

전북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은 오는 9월 13일부터 총 9회에 걸쳐 시립학교를 포함한 퇴직예정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퇴직예정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퇴직예정자 교육은 정년 이후 개개인이 미래의 삶과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생 설계를 구상해보는 진로탐색 및 은퇴지원 교과목과,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누리기 위한 여가 등의 교과목으로 운영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부안군과 협력해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탐방하는 과정도 신설했다. 교직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퇴직예정자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오는 9월 8일까지 전북교육연수포털(www.jsudc.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현주 원장은 "은퇴를 앞둔 교직원들이 퇴직예정자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설계를 세울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현장정책기획단 워크숍

교육정책 운영 결과 공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5~28일 이틀간 익산 웨스턴리조트에서 2023년 전북교육 현장정책 기획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교육 현장정책을 기획하고 있는 현장정책기획단과 도교육청 교육정책업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전북지역 교육정책 현장 모니터링 운영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정책들은 학생의 교육환경과 학습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 운영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중요하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416만주민교육원 오재길 교수부장이 '교육정책 모니터링 운영 및 정책발달 실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올해 전북교육청 10대 핵심과제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분과별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현장정책기획단 운영은 전북지역의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선 학교 교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